

지역 소식통

정읍시, 가을 개학 대비 어린이 식품판매업소 점검

정읍시는 가을 개학을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학교 매점, 학교 주변 문방구·분식집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116개소, 주요 점검 항목은 △조리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소독(유동)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진열 및 판매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어린이 정서 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생도 미착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 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업소에 대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3년 하반기 해양치유 힐링체험 운영

고창군이 동호해수욕장 일원에서 '힐링'을 주제로 하반기 해양치유 힐링체험을 3차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반기 첫 순서로 오는 26~27일 오전 10시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해양치유 힐링체험은 고창군이 보유한 해양치유자원들을 활용해 해양노르딕워킹, 마린아트테라피(소금아트), 탈라스테라피(솔트스кра) 등, 해조류팩 등, 해양치유푸드(바지락밴드위치) 등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사전 신청 없이 동호해수욕장 현장에서 누구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다. 해양치유 힐링체험은 올해 새롭게 추진했던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1000명 이상 참가해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다음달 9·10월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을대교 연계 발전방안 수립

부안군, 군수 주재 20여명 참석... 노을대교 건립 후 활용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지난 23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노을대교 건립 후, 이용객의 부안군 유입 및 활용방안, 서해안권 연계 관광자원 개발, 교통·물류체계 개선방안을 도출, 부안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노을대교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강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관광부(출판만 해안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 교통부(서해안철도 건설 등) 7개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연계부(농생명산업지구 등) 8



개 사업을 발굴하여 전체 3개 분야 / 27개 과제 / 총사업비 6조 9,800억원 상당의 사업들이 도출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방안들을 지금부터 내실있게 준비한다면 도로망 개

선에 따른 노을대교 파급효과가 부안군 내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류관광객 맞춤 수요를 창출하여 부안이 서해안권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콩 생육 · 기상 대비해 콩 병해충 적기방제 당부

정읍시농기센터, '예찰 철저' 요구

정읍시농기센터(소장 전정기)는 콩의 생육과 기상을 대비해 불마름병, 탄저병 및 나방 노린재 등 병해충 적기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농공은 올해 7~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해 생장이 부진하거나, 심한 곳은 작물이 고사하는 등 전체적으로 생육이 불량한 실정이다.

또한 장마 이후 고온이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 보다 철저한 예찰과 방제가 요구된다.

특히 장마 이후 많이 발생하는 콩 불마름병은 열은 녹색의 점무늬가 담갈색으로 변하고 주위가 노랗게 변하

면서 잎 뒷면에 물기를 형성하는데, 감염종자나 식물체에서 월동하고 있다가 비뚤에 의해 주변 잎으로 전파된다.

불마름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적용 약제를 발병 초기에 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한다.

콩 탄저병은 꼬투리에 원형 또는 타원형의 검은 반점이 형성되는데 식물체에서 균사 상태로 월동해 전염되고 비바람을 통해 전염되고 높은 온도에서 발생이 심해진다.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량종자 사용과 종자 소독이 꼭 필요하며 포장 습도를 건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꼬투리를 빈 각지로 만드는 콩 나방 및 노린재 피해는 수확기에 콩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해충이 발생되는 초기방제가 중요하다. 꽃이 맺히는 시점부터 콩 꼬투리가 달리는 시점까지 10일 간격으로 나방 및 노린재 방제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노린재 방제는 활동 시간대를 고려해 적용 약제를 오전 또는 해질무렵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지속적인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콩 생육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하릴 때 일수록 더욱 철저히 병해충 방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민주도형 마을 현장포럼 성료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하남선)는 최근 관내 3개 마을(부안읍 검장 석하 동진면 제전)에서 지역주민 5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 현장포럼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마을 현장포럼'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 의지 고취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되어, 8월 7일부터 21일까지 마을별 3회차 6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주민 스스로 마을자원 및 현안이슈를 발굴하여 실행해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마을 현장포럼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보듬어주는 마을을 목표로 마을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을 마을 주민 스스로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청소의 날을 정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

회관 도로변 주변에 잡초제거, 쓰레기줍기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함께 참여한 한 주민은 "사후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통하여 마을에서 사라졌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다시 만들 계획이며, 주민들이 단합하여 우리 마을을 깨끗이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 및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펼칠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독서의 즐거움, 일상의 이로움'

정읍시, '제4회 책 축제 달빛소풍' ... 9월 16일 시립중앙도서관서

정읍시가 '제4회 책 축제 달빛소풍'을 9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내부 및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

'독서의 즐거움, 일상의 이로움'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과 즐거운 독서문화를 나누고자 작가와의 만남과 북 콘서트, 출판기념식, 작품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행사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이라야 작가가 진행하는 '브런치 콘서트'를 시작으로 현악 4중주 메르헨 카르넬의 화려한 선율과 함께 '은유 작가의 글쓰기 상담소'를 진행한다.

오후 1시부터는 도서관 내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두더지의 여름' 김상근 작가와 '하루와 미묘' 임정자 작가와의 만남이 열린다. 어린이

와 가족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켜라' 박연철 작가의 그림책 몸짓 공연이 열린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야외무대에서 미술 풍선 공연을 시작으로 도서관 봉사 유공자와 책 읽는 가족 시상식과 시민 작가들의 창작 동화집 '정글 보따리 5집', 신중년 아카데미 글 모임집 '우물가 소담소담 1집'의 출판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오후 7시 50분부터 야외무대에서 '달빛 북콘서트'가 열린다. 책에 음률을 담은 '서울밴드'와 함께하는 참여형 인문 콘서트로 감동적인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은 "이번 책 축제 달빛소풍은 시민 여러분께 독서의 즐거운 추억을 드리우고자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정읍시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3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 발령으로 시민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이동하고 차량 통제훈련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군·경 합동 통제소 설치훈련은 제808부대3대대 장병과 정읍경찰서 병력이 연지사거리에서 실시됐고, 긴급차로 비상차로 확보훈련은 정읍소방서와 정읍경찰서 협조 하에 이뤄졌다.

이학수 시장은 삼화그린아파트 민방위 훈련 현장에 직접 참여해 적 항공



기 폭격에 따른 주민대피훈련을 지휘했다.

이 시장은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시 행동과 대피요령을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택시기본요금 다음달 1일부터 1000원 인상

고창군이 지난 4년간 동결됐던 택시기본요금을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금 조정기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본요금(2km까지)을 기존 400원에서 25% 오른 500원(1000원 인상)으로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요금 조정에 따라 거리운임은 137m 당 163원에서 134m 당 163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시 33초 당 163원에서 32초 당 163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00:00~04:00)과 고창군을 벗어나는 시계의 운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20% 적용한다.

요금 인상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택시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금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시·군에 통보됐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모두 택시 요금인상을 하게 됐다.

고창군청 나철주 건설도시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창군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and provides a hotline number 112. It lists signs of child abuse and the benefits of reporting.